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

최아란
성신여자대학교

A Exploratory Study on th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Eco-friendly Behavior: Focused on College Students

Choi ARan
Sungshin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 실천 여부를 조사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가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86.2%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60.6%는 기후변화가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51.1%는 지역주민, 71.8%는 한국 사람들, 89.4%는 세계 빈민층, 97.3%는 미래세대라고 답하였다. 미국 선행조사와 이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 응답자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 실천 비율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응답자가 기후변화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 위험인식 정도의 차이가 친환경 행동 실천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관심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92 students enrolled 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eco-friendly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analysis showed that 86.2% of the respondents were worried about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60.6% of respondents said climate change has a serious impact on individuals, 51.1% said local residents, 71.8% said Koreans, 89.4% said the future generation.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U.S. survey, Korean respondents'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the practice rate of eco-friendly behavior were higher than the U.S. Also, a correlation analysis h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eco-friendly behavior. Therefore, this difference in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seems to have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est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active climate change ac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climate change risks perception.

Key words: Risk percepti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Eco-friendly behavior

1. 서 론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발간한 5차 보고서¹⁾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의 주원인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며, 배출된 양은 지난 80만년 내 최고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가 진행을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각 국에서 정책적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일례로 2016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²⁾에서 기후변화 인지에 대해 문항에 '알고 있다'는 응답은 62.0%이며, 우리나라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는 응답이 57.4%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시민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알고 있는 반면, 기후변화 정책에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0%, '이름만 들어본 정도'는 50.9%, '들어본 적이 없다'는 16.0%로 나타났다. 이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인지하는 것에 비해 실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이 적은 이유는 기후변화가 본인의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만큼 직접적인 경우가 드물며 당장 본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³⁾,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낮은 만큼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대한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

* Corresponding author: 최아란, aran828@naver.com, 본 논문은 최아란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환경 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식적 차원에서 응답자들이 갖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실제 행동 차원의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결과를 미국에서 시행한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대표적으로 2가지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먼저,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설문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Leiserowitz 등(2017)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Leiserowitz 등(2017)는 미국 일반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예일대학교의 기후변화연구소(The Yale Program on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YPCCC)와 조지메이슨대학교의 기후변화센터(George Mason University Center for Climate Change Communication, Mason 4C)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인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 태도, 위험인식 등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설문 결과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7년에 발표된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November 2016”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18세 이상의 미국인 1,2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20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대부분이 이미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후변화 현상이 우려되거나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기후변화가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이 대상에 따라 바뀌고 있으며, 그 대상이 본인에서 지역주민, 미국 시민으로 확대될수록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세계 빈곤층이나 미래세대에게는 기후변화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미국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상대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의 경우, 기후변화 인식에 대한 연구만 진행하였기 때문에 친환경 행동 실천 수준은 비교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환경태도/지식과 친환경 행동에 대해 연구한 김경신(2017)⁵⁾의 설문문항 및 결과를 참고하였다.

김경신(2017)은 대학생들의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환경에 대한 태도/지식수준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문화적 맥락에서도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의 인디애나 Taylor 대학교와 한국의 경남대학교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aylor 대학 재학생 206명과 경남대 재학생 221명에게 동일한 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 지속가능성 정책을 인지한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지식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환경친화적 행동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친화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적 맥락의 차이와 상관없이 환경에 대한 지식수준의 함양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한국의 대학생임을 감안하였을 때 김경신(2017)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행동문항을 비교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3. 연구방법

3.1 조사 설계

3.1.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신여대 재학생이라는 한정된 집단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국내 전체의 경우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나 이 조사의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과 사고방식은 장래의 환경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젊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결정의 경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

3.1.2 표집 방법

본 조사에서는 할당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의 단과대학을 계열별로 통합하여 6개로 분류하였으며, Table 1과 같이 2017년 1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 비율을 토대로 표본 수를 할당하여 192명을 표집하였다.

3.1.3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Leiserowitz 등(2017)과 김경신(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간소화하였다. 평가영역은 기후변화 인지 여부, 기후변화 위험인식, 친환경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각 영역별 측정지표와 측정방법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3.1.4 조사 방법

이 조사는 2017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설문조사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조사자가 직접 강의실에 방문하여 각 단과대학 별 할당된 표본 수에 따라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192부를 배포하여 192부를 회수하였다. 전공별로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고르게 응답자를 할당

Table 1.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 현황 및 표집인원

계열	재학생 수	비중(%)	표집인원(명)
인문계열	1,592	16.60	12
법학/사범계열	1,080	11.70	23
사회계열	1,722	18.70	24
간호/생활계열	1,575	17.10	40
예체능계열	2,091	11.60	52
자연과학/공학계열	1,236	13.40	41
총계	9,233	100	192

Table 2. 설문 구성

평가 영역	측정 지표	비고
기후변화 인지 여부	기후변화에 대한 믿음	3점 척도
	기후변화의 원인	5점 척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5점 척도
기후변화 위험인식	기후변화가 날씨에 미치는 영향 정도	5점 척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인지 시기	
	본인/지역사회/국가에 대한 위험인식	
	세계 빈민층에 대한 위험인식	
친환경 행동	미래세대에 대한 위험인식	5점 척도
	대중교통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재활용	
	물 절약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표집인원과는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88부를 연구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특성 파악을 위해 환경관련 단체/동아리 가입 여부,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교육 수강 여부, 환경 관련 수업/세미나 이수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체적인 분포를 보면 응답자의 86%가 환경관련 단체나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으며, 58%가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59%가 환경 관련 수업이나 세미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Fig. 1]

4.2 기후변화 인지 여부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95.7%가 '긍정'으로 답하였다. 기후변화 우려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86.2%가 '걱정된다'고 답했다(매우 걱정 22.3%, 걱정 63.8%). 이 결과는 2008년 환경부의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90.5%가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결과보다는 낮지만 한국인의 대다수가 기

후변화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⁷⁾. [Fig. 2], [Fig. 3]

4.3 기후변화 위험인식

기후변화에 대해 위험을 느끼는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다섯 개의 대상(본인, 지역주민, 한국 사람들, 세계 빈민층, 미래세대)을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제시된 대상 별로 각기 다른 응답 비율을 보였다. 기후변화가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는 60.6%, '지역주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1.1%, '한국인'은 71.8%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기후변화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의 빈민층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경우, 각각 89.4%, 97.3%의 응답자가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Table 3]

4.4 친환경 행동

설문 응답자의 친환경 행동 실천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행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문항에 94.1%의 응답자가 긍정으로 답변하였다. 이는 설문 응답자의 특성 상 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⁸⁾.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문항은 각각 71.8%와 71.3%의 응답자가 긍정으로 답하였으며, 물 절약에 대해서는 52.7%의 응답자가 긍정으로 답하였다. 환경

제품 구입에 대한 문항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44.1%로 다른 행동 문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Table 4]

5. 연구결과의 해석

5.1 기후변화 위협인식

기후변화 위협인식 문항에 대해 YPCCC와 Mason 4C

에서 2016년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기후변화 위협인식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비율의 차가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한국 86.2%, 미국 61.0%). 또한 한국과 미국의 응답자 모두 대상의 범위가 커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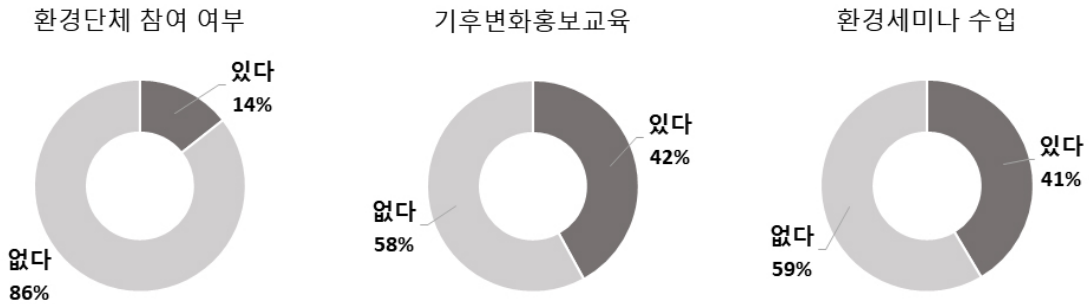


Fig. 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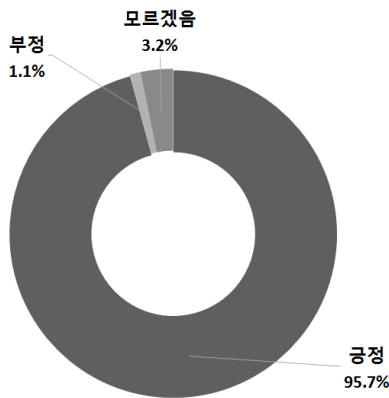


Fig. 2.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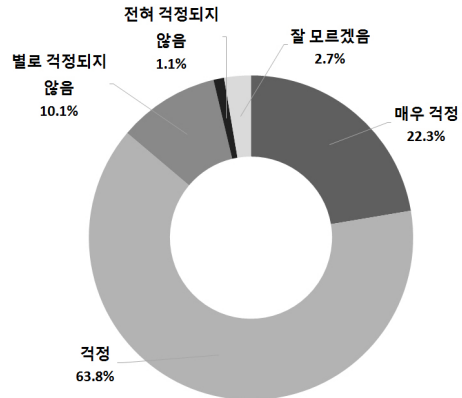


Fig. 3.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

Table 3.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미치는 대상 별 응답 비율 (단위 %)

구분	매우 심각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본인	6.4	54.3	32.4	1.6	5.3
지역주민	6.4	44.7	39.9	1.6	7.4
한국 사람들	10.1	61.7	22.3	1.6	4.3
세계 빈민층	48.4	41.0	6.9	0.0	3.7
미래 세대	69.1	28.2	1.1	0.5	1.1

Table 4. 친환경 행동에 실천 비율 (단위 %)

구분	항상 하고 있다	가끔 하고 있다	별로 하지 않음	전혀 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대중교통 이용	73.9	20.2	4.3	1.6	0.0
에너지 절약	32.4	38.8	24.5	3.7	0.5
친환경 제품 구입	6.4	37.8	44.7	10.1	1.1
재활용	30.3	41.5	21.3	5.9	1.1
물 절약	18.1	34.6	36.7	9.6	1.1

다. 미국의 경우 본인, 지역주민, 미국으로 갈수록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의 경우 지역주민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고 나머지는 미국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Fig. 4], [Fig. 5]

5.2 친환경 행동

친환경행동 결과는 미국 Taylor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전반적으로 성신여대 재학생의 친환경 행동 실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대학생들의 기후변화 인식과 태도가 미국 대학생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김경신(2017)의 기존 연구에서 경남대 재학생의 환경에 대한 태도와 지식 수준이 Taylor대 재학생보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환경친화적 행동 참여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에너지 절약 문항의 경우 유일하게 미국 응답자의 긍정 비율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미국 74%, 한국 71%). 미국의 Taylor대학교 조사 당시, 대학 재정난을 이유로 에너지 저감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캠페인에 노출되었음으로 한국보다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⁵⁾.

물 절약의 경우, 한국이 미국 응답자보다 높은 실천 비

율을 보였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물부족국가라는 인식이 강하며, 과거 정부 주도 하에 물 절약 종합 대책 수립과 물 절약 범국민운동이 추진된 바가 있다^{9),10)}.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에 오랫동안 노출되었기 때문에 한국 응답자의 실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제품 구매 문항의 경우, 두 국가 모두 가장 낮은 행동 실천 비율이 나타났다(한국 44%, 미국 19%). 이 결과는 친환경 제품이 가격이 비싸며 일반 제품에 비해 구매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며, 실제 친환경 제품이 환경에 대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Fig. 6]

5.3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에너지 절약을 제외한 모든 행동 문항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환경인식과 환경행동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경인식과 친환경행동이 정(+)의 관계를 보이며 연관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천현정 외 2인, 2010¹²⁾; 이하늘, 2011¹³⁾).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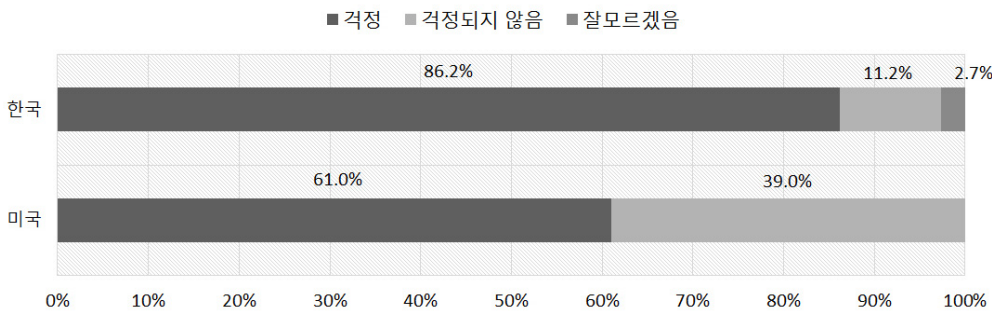


Fig. 4. 기후변화 우려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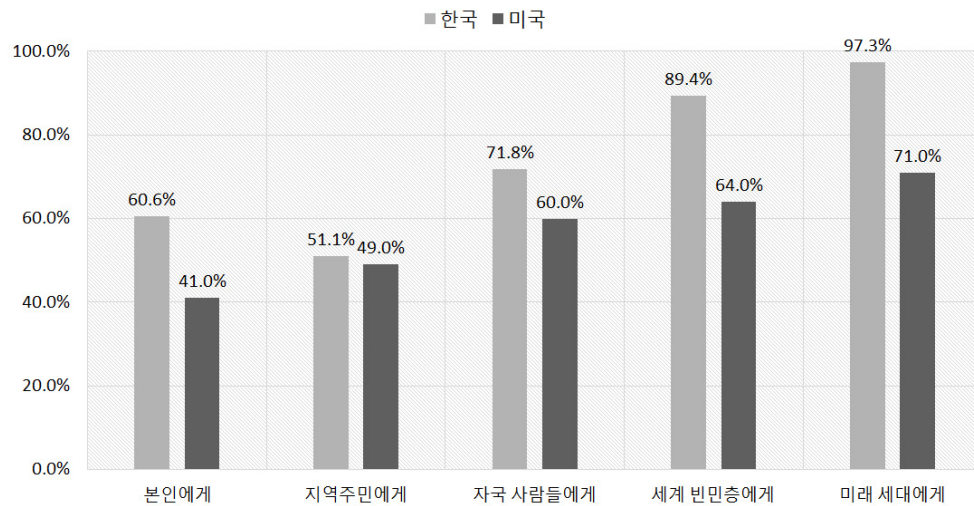


Fig. 5. 한국과 미국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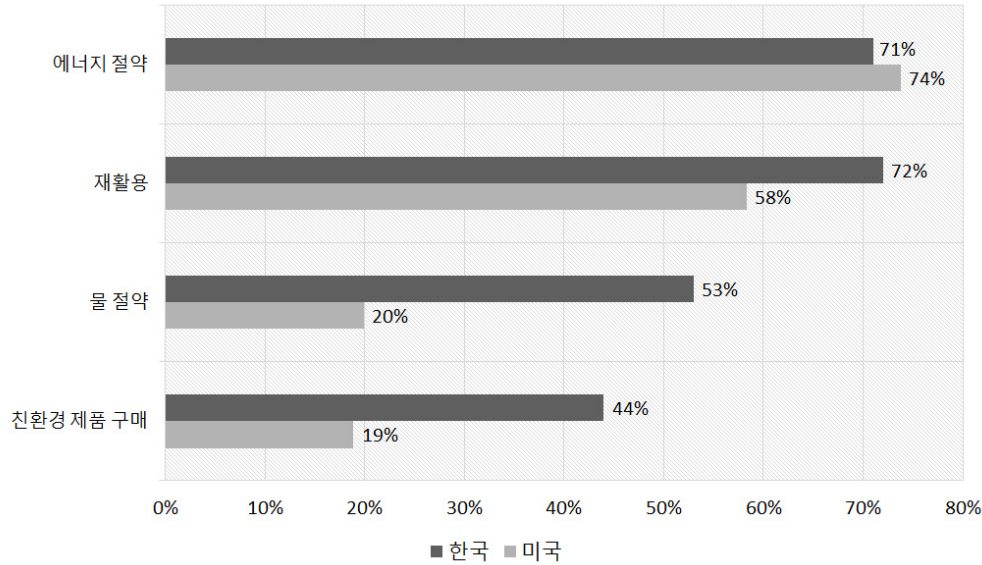


Fig. 6. 한국과 미국의 친환경 행동 실천 응답 비율

Table 5.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의 상관분석 결과

	친환경제품	물 절약	재활용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위험인식	.157*	.221*	.236**	.104

* $p < 0.05$, ** $p < 0.01$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에 대해 연구한 Leiserowitz 등(2017)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분석틀을 사용한 성신여대의 결과와 비교하여 한국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원인을 추론하였다. 또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경우, 개인, 지역, 국가, 세계 빈민층, 미래세대에 대한 위험인식 긍정 비율이 한국 응답자가 미국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가 커질수록 기후변화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 행동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에서 한국 응답자의 실천 응답 비율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 위험인식 문항과 친환경 행동 문항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 간에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 비해 한국의 기후변화 위험인식이 높은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었

기 때문에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미디어(신문, TV, 인터넷뉴스)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 이슈로 대립되고 언론사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달리하여 보도를 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후변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에 대한 대응 측면에 대한 보도가 두드러진다¹⁴⁾. 상충하는 정보가 범람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려정도가 결정되는데¹⁵⁾, 한국의 경우 기후변화의 양면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경신(2017)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행동 실천 비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 대학생에 비해 한국 대학생이 더 높은 실천 비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김경신(201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로 한국 응답자의 환경에 대한 태도가 더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 한국인이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크나 해결을 위한 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를 보인 선행연구가 있으며(박희제·허주영, 2012¹⁶⁾; 통계개발원, 2011¹⁷⁾; Brechin, 2010¹⁸⁾),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는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에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관심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위험

인식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단일 대학교 학생이라는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미국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인식 조사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 둘째, 기후변화 인식 조사와 동일한 대상으로 시행한 친환경 행동 조사가 없어 부득이하게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인식과 행동의 비교대상이 상이하다. 따라서 향후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타 대학의 표본을 확보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표본의 수를 늘려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유럽이나 한국과 동일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기후변화 2014 - 종합보고서,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기상청, (2015).
- 2) 곽소윤, 이창훈, 임용빈,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 3) 윤순진, “서울 북경 동경 시민의 기후변화 위험인식 비교”, 한국환경사회학회, 31-47 (2013).
- 4) Leiserowitz, A., Maibach, E., Roser--Renouf, C., Rosenthal, S., & Cutler, M., “Climate change in the American mind: November 2016”, Yale University and George Mason University (2017).
- 5) 김경신, “지속가능한 캠퍼스 구축을 위한 대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태도/지식의 행동에 대한 영향 연구”, 환경정책, 25(3), 95-118 (2017).
- 6) 김경신, 조희선, “후쿠시마 사고 전후, 대학생들의 원자력발전 에 대한 위험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3(3), 145-172 (2015).
- 7)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 (2008).
- 8) 대학내일20대연구소, “연구리포트-수도권 거주 대학생 통학 실태 조사”, (2014). <https://www.20slab.org/archives/492>
- 9) 환경부 물질약추진기획단, “물질약 홍보효과 설문조사 결과”, (2005).
- 10) 주봉현, “물질약 범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주제발표 1. 물질약 종합대책”,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워크샵>, 1-52 (2000).
- 11) 강만옥, 구윤모, 이미숙, 정재현, “친환경적 행동의 불편비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5).
- 12) 천현정, 정순희, 신민경, “기후변화관련 소비자 지식·의식·행동 수준이 기후변화 대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연구, 6(3), 1-24 (2010).
- 13) 이하늘, 정순희, 신민경, “한국과 중국 대도시 여성소비자의 녹색소비행동 비교연구”, 소비문화연구, 14, 183-207(2011).
- 14) 유명순, 윤혜정, 천진희, 주영기, “국내 뉴스미디어의 기후변화 보도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7(3), 105-137 (2017).
- 15) 박희제, “한국인의 광우병 위험인식과 위험회피행동”, 농촌사회, 22(1), 311-341 (2012).
- 16) 박희제, 허주영, “누가 기후변화회의론자인가?”, 환경사회학 연구 ECO, 16(1), 71-100 (2012).
- 17)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11”, (2011).
- 18) Brechin, S. R., “10 Public opinion: a cross-national view”, Routledge handbook of climate change and society, 179 (2010).

부록: 설문지

나이	세	
전공	<input type="checkbox"/> 인문계열	
	<input type="checkbox"/> 사회계열	
	<input type="checkbox"/> 예체능계열	
	<input type="checkbox"/> 법학/사범계열	
	<input type="checkbox"/> 간호/생활계열	
	<input type="checkbox"/> 자연과학/공학계열	
환경단체 (동아리 포함) 참여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기후변화에 대한 홍보·교육을 받아 본 경험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환경 관련 수업/세미나에 참여한 경험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1.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1
아니요	2
모르겠음	3

2.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	1
환경의 자연적인 변화로 인한 것	2
지구온난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음	3
인간 활동과 자연적인 변화 모두	4
기타 (적어주세요)	5

3.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걱정되나요?

매우 걱정	1
걱정	2
별로 걱정되지 않음	3
전혀 걱정되지 않음	4
잘 모르겠음	5

4. 지구온난화가 기상/날씨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의 날씨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영향력 있음	1
조금 영향력 있음	2
영향은 있으나, 정도는 모르겠음	3
전혀 영향력이 없음	4
잘 모르겠음	5

5.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언제부터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1
10년 이내	2
50년 이내	3
100년 이내	4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5

6.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아래의 대상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 심각	심각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응답자에게	1	2	3	4	5
응답자가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1	2	3	4	5
한국 사람들에게	1	2	3	4	5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1	2	3	4	5
미래 세대에게	1	2	3	4	5

7. 아래 내용에 대해 응답자는 얼마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항상 하고 있다	가끔 하고 있다	별로 하지 않음	전혀 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자가용 이용 자제, 친환경적 대중교통 자주 이용하기	1	2	3	4	5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	1	2	3	4	5
재활용가능 상품 등 친환경 제품 구입	1	2	3	4	5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1	2	3	4	5
물을 아껴 쓰기	1	2	3	4	5